



1위 전북·3위 서울 '창과 방패'의 격돌

28일 전주성서 시즌 첫 맞대결... 전북 필두로 각축전
울산 경남전서 반등 도전... 대구는 강원과 원정경기

프로축구 K리그1 디펜딩 챔피언이자 올해도 우승 후보인 전북 현대, 지난해와는 확 달라진 모습으로 초반 상위권에 자리 잡은 FC서울이 전주성서에서 시즌 첫 맞대결을 펼친다. 두 팀은 28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1 2019 9라운드에서 격돌한다. K리그1 8라운드까지 선두권에선 전북을 필두로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다. 전북이 승점 17(5승 2무 1패)로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울산 현대와 서울이 승점이 같은 2~3위

라 언제든 선수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전북과 서울의 시즌 첫 맞대결은 초반 순위 경쟁의 분수령이 될 만한 경기다. 3년 연속 리그 우승에 도전하는 전북은 최근 3연승을 포함해 리그 5경기 무패(4승 1무)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선 우라와 레드(일본)를 2-1로 꺾고 상승세를 탔다. 서울은 8라운드 인천의 잔물 수비에 막혀 0-0 무승부를 기록해 연속

은 중단됐지만, 3경기 무패(2승 1무)는 유지하고 있어 두 팀 모두 최근 흐름이 나쁘지는 않다. 선두 다툼 외에 두 팀의 경기는 현재 리그 내 '최다 득점'과 '최소 실점'을 자랑하는 '창과 방패'의 대결로도 관심을 끈다. 전북은 '낙공'(낙차고 공격)의 팀답게 올해 8경기에서 16골을 폭발하며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이다. 반면 서울은 4골만 내주며 가장 적게 실점한 팀이라 전북의 호화 공격진도 봉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골을 터뜨린 김신욱(전북), 3골로 뒤를 잇고 있는 페시치(서울) 등 양 팀의 간판 공격수 대결도 관전 포인트다. 8라운드에서 성남 FC에 달미를

잡혀 리그 첫 패배를 기록했던 울산은 28일 오후 4시 경남 FC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반등을 노린다. 세 팀에 이어 4위(승점 13)를 달리는 대구 FC는 강원 FC와 원정 경기를 치른다. 23일 산프레체 히로시마(일본)와의 AFC 챔피언스리그에서 허벅지 뒤쪽 근육 부상으로 교체된 '에이스' 세징야가 2주가량 휴식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며 대구가 세징야 없이 리그 무패 행진을 이어갈지 시선이 쏠린다. 이번 시즌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며 22일 최순호 감독을 경질하고 김기동 감독을 선임한 포항 스틸러스는 26일 수원 삼성과 맞붙는다. 연합뉴스

제주연고 현대백화점 종별양궁 '백발백중' 여자부 대회신기록 금 6개 독식... 유수정 5관왕 현대체철 한재엽·오진혁 선전 남자부 단체 2위

제주연고팀 현대백화점 양궁단이 제 53회 전국남여종별양궁선수권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작성하며 '금과 녍'을 명종시켰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2-23일 광주 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 여자일반부 단체전에서 4132점을 적중하며 대회신기록을 수립, 정상에 등극했다. 정다소미·전훈영·유수정·송지영은 지난해 광주광역시청이 세운 대회기록 4103점을 19점 차로 앞서며 기록을 갈아치웠다. 유수정은 개인전에서 1394점(총점 기록 2003년 1388점, 박성현)을 쏘며 대회신기록 작성과 함께 개인종합 1위를 거머쥐었다. 정다소미는 1371점으로 개인종합 2위를 차지했다. 유수정은 개인전, 단체전, 그리고 거리별 70m, 60m, 50m에서 모두 1위에 오르며 5관왕의 위업을 달성했다. 정다소미는 단체전과 거리별 30m에서 우승하며 2관왕에 올랐다. 이로써 현대백화점은 지난 2월에 열린 한국실업연맹회장기실내대회에서 개인·단체·혼성 등 전종목 석권



사진 왼쪽부터 이은경 감독, 전훈영, 정다소미, 송지영, 유수정.

에 이어 이번 종별선수권대회에서도 개인·단체·거리별 등 전체 6개 경기에서 금메달 모두를 독식했다. 제주연고팀 현대체철선수단은 이 대회 남자일반부 단체전에서 4064점의 기록으로 상무(4074점)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했다. 한재엽과 오진혁이 개인종합 2-3위에 올랐다. 거리별 50m에서 오진혁과 한재엽이 1위를, 30m에서 민병연이 1위에 각각 오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오진혁은 90m와 70m에서도 은메달과 동메달 1개씩을 각각 추가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2019 전국생활체육대축전 25일 충북서 4일간 열전 돌입 일본 선수단 170여명도 참가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큰 잔치인 '2019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25일 충북 11개 시·군에서 시작됐다. 올해로 19회째인 이 대축전에는 전국 17개 시·도 생활체육 동호인과 임원 2만2600여명이 참가했다. 한·일 교류 차원의 일본 선수단 170여명도 참가했다. 이들은 오는 28일까지 육상과 축구 등 39개 정식 종목과 줄다리기, 줄넘기 등 4개 시범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게 된다. 개막식은 26일 오후 5시 충주 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이날엔 국무총리와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해 1만2000여명이 참석한다.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시범단 공연을 시작으로 충북지역 색소폰 등 호인과 실버합창단 공연, 에어로빅과 실버스포츠 댄스 공연 등이 이어진다. 비보이 공연과 충주 시립택견단 시범, 가수 코요태의 공연, 멀티미디어 불꽃 쇼도 예정돼 있다. 이번 대축전은 오는 28일 오후 4시 충주시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리는 폐회식으로 마무리된다. 폐회식에서는 내년도 개최지인 전북도로 대회가 이양된다. 연합뉴스



슛하는 맨시티 실바 24일(현지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의 2018-2019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경기에서 맨시티의 베르나르두 실바가 슛을 하고 있다. 맨시티는 이날 '맨체스터 더비'에서 2-0으로 승리했다. 맨시티는 승점 3을 더해 승점 89를 기록, 리버풀을 승점 1점 차로 제치고 1위에 복귀했다. 연합뉴스

류현진, 강정호와 첫 대결 관심 증폭 27일 피츠버그전 시즌 5번째 선발 등판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왼손 투수류현진(32)이 동갑내기 맞수 강정호(32·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첫 대결을 준비한다. 다저스 구단은 25일(한국시간) 취재진에게 배포한 게임 노트에서 류현진의 등판일을 공개했다. 류현진은 27일 오전 11시 10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피츠버그 파이

리츠와의 홈경기에서 시즌 5번째로 선발 등판한다. 류현진은 밀워키, 사카고에서 원정 7연전을 치르고 휴에 돌아와 벌이는 피츠버그와의 홈 3연전의 서막을 연다. 이번 등판은 강정호와와의 한국인 투타 대결로 더욱 관심을 끈다. 2013년 KBO리그에서 최초로 바리그로 직행한 류현진과 2015년 류현진의 뒤를 이어 KBO리그에서 바리그로

진출한 최초의 야수 강정호는 아직 바리그로에서 맞붙은 적이 없다. 다저스는 류현진에 이어 클레이턴 커쇼, 왼쪽 무릎 통증을 앓아온 리치 힐 등 왼손 삼중사를 차례로 3연전 선발로 내보낼 전망이다. 우타자 강정호가 이들을 상대로 좋은 인상을 남겨야 콜린 모란과의 주전 3루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한다. 류현진은 올해 홈에서 2승, 평균자책점 2.08, 이닝당출루허용률(WHIP) 0.77을 기록할 정도로 유독 강했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시즌 3승 사냥에 나선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특정팀 전패'의 악몽

삼성·kt·KIA 이유 있는 하위권 추락

프로야구 초반 순위 하위권을 형성한 삼성 라이온즈, kt wiz, KIA 타이거즈 세 팀엔 공통점이 있다. 9개 구단과의 시즌 1차 대결을 마치고 이제 막 2차 대결에 접어들어 시점에서 특정 팀에 전패를 당했다는 사실이다. 8위 삼성은 24일 SK 와이번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투수 저스틴 헤일리의 갑작스러운 옆구리 통증에 따른 조기 강판으로 불펜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9위 kt도 NC 다이노스만 만나면 맥을 못 춘다. 올해 5번 만나 모두 졌다. 지난달 26~28일 창원 3연전에서 모조리 패한 탓에 NC전 스타트를 잘못 끊었다. 9년 만에 8연패를 답습한 최하위 KIA도 LG 트윈스에 4전 전패했다. LG를 홈으로 불러들여 올해 정규

리그 공식 개막 2연전을 치른 KIA는 안방에서 모두 패했고, 가장 안 좋은 시기에 다시 만난 LG에 23~24일 대패했다. SK, NC, LG는 하위권 세 팀에 연승으로 상위권 유지의 발판을 마련했다. 시즌 초반 맞붙어서 대등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시즌 내내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은 지난해 LG의 사례가 잘 보여준다. LG는 두산에 15번을 패하고 순위가 결정된 뒤 마지막 대결에서 막 한 번 이겼다. 15승이나 헌납한 LG는 가을 잔치상에 초대받지 못했고, 두산은 정규리그 1위로 승승장구했다. 대결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객관적인 전력 차다. 하지만 특정 팀에 처음부터 밀리기 시작한 팀은 전력 차보다도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 엔지 안 풀린다는 초조함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 꼬인 실태를 풀려면 어떻게든 서둘러 패배 징크스를 깨는 게 먼저다. 그렇게 못하면 시즌 끝까지 발목 잡혀 시즌을 망칠 수도 있다. 연합뉴스

승진 소방정

강한석
(인천소방본부 119상황실장)
(배우자: 정상연 · 아들: 딸: 민규·민주)
(부: 故 강상호 · 모: 양옥심 · 큰형: 강봉오)

소방정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형제자매 일동

취임

제주특별자치도 상인연합회 회장

최용민
(재)서귀포시전남도민회장, 흥년농수산 대표)

제주특별자치도상인연합회 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귀포 우정의친목회 회원일동

선임

동아시아 유도연맹 심판위원장 및 아시아 유도연맹 심판위원

문원배

동아시아 유도연맹 심판위원장 및 아시아 유도연맹 심판위원 선임(재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저지.수동마을회 저지.수동향우회

서귀포고등학교 개교 50주년

개교 50주년을 축하하며 서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서고인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서고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잊지 마시고 각자의 분야에서 책임과 최선을 다하면서 더 멋진 인생과 미래를 펼쳐 나가는 진정한 서고인이 됩시다.

양하경 (서고 1회 졸업)